

[소방직 국어]

해설 위원: 김세령

본 문서 내용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문항 분석 >

유형	년도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문항수	문항수
문법	현대문법	5	5
	고전문법	×	×
	실용문법	3	3
문학	고전문학	2	3
	현대문학	3	3
	문학사(지식국어)	1	×
비문학	작문(쓰기)	1	2
	독서(읽기)	2	3
어휘	한자어	2	1
	고유어	1	×

< 총 평 >

소방직 문제가 공개된 후 가장 규모가 큰 시험이었습니다. 처음 공개된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상반기의 문제 문항 수는 비슷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 현대문법:** 전년도와 비슷한 난이도로 기출 문제 풀이가 끝난 수험생들은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 실용문법:** 전년도와 비교해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 고전문학:**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가사 작품이 출제되어 어렵다는 느낌을 받은 수험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전문학 문제는 완전히 수능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 현대문학:** 수능형으로 출제되었고 문학을 독해하는 기초 체력을 많이 길러야 하겠습니다.
- 비문학:** 출제 지문과 문제 유형 모두 수능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긴 지문을 읽어내는 집중력과 보기를 읽어내는 분석력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 어휘:** 소방직 시험에서 처음으로 독음이 달리지 않은 문제 유형이 출제되었습니다. 쉬운 단어이기는 했으나 한자어를 보고 당황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자 공부 방법을 다시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세령국어와 함께 시험 준비를 한 수험생들은 어려움 없이 푸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문법은 수업 시간에 암기한 부분에서 다 출제되었습니다. 문학과 비문학도 수업 시간에 했던 기초 다지기를 통해 잘 푸셨을 것입니다. 문학과 비문학 독해는 문제를 푸는 방법을 먼저 알고 꾸준히 연습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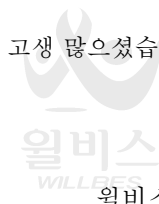
< 향후 공부 방법 >

2019년 상반기 문제 유형을 통해 보면 결과적으로 벼락치기 공부 방법으로는 힘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 유형이 골고루 출제되어 성실하게 준비한 수험생들에게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국어는 최소 8개월 정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문법을 2번 돌리고 문학과 비문학의 이론을 공부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4개월, 여기에 기출문제 풀이 4개월이 그 과정입니다.

안타깝게 올해 불합격의 고배를 마신 수험생들은 준비하는 시간을 명심해서 2020년에는 합격의 축배를 꼭 들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9. 4. 6.

윌비스 불꽃 소방팀 김세령 올림



1. 단어의 형성 방법이 다른 것은?

- ① 기와집 ② 지우개
- ③ 선생님 ④ 개살구

01. 정답 ① / 난이도 ★

출제포인트 현대문법- 단어 형성법

문제 해결방법 어근과 접사를 구별해야 합니다.

정답해설

① 기와(어근)+집(어근) = 합성어

오답 해설

- ② 지우(어근) + 개(접사) = 파생어
- ③ 선생(어근) + 님(접사) = 파생어
- ④ 개(접사) + 살구(어근) = 파생어

2. ㄱ, 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 ㄱ. 우리 부모님께서는 내가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하신다.
- ㄴ. 우리는 이곳이 교통사고 발생의 빈도가 잦음을 전혀 몰랐다.

- ① ㄱ과 ㄴ 모두 명사절이 안겨 있다.
- ② ㄱ과 ㄴ 모두 안긴문장 속에 목적어가 있다.
- ③ ㄱ과 달리 ㄴ에는 안긴문장 속에 관형어가 있다.
- ④ ㄴ과 달리 ㄱ에는 안긴문장 속에 부사어가 있다.

02. 정답 ② / 난이도 ★★

출제포인트 현대문법-문장의 짜임새 + 문장성분

문제 해결방법 문장의 짜임새를 구별해야 하고, 문장성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 문장의 짜임새

- ㄱ. 우리 부모님께서는 (내가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하신다.
부사어(체언+부사격조사)↓ → 명사절로 안긴문장
- ㄴ. 우리는 (이곳이 교통사고 발생의 빈도가 **잦음**)을 전혀 몰랐다.
관형어(체언+관형격 조사) ↓ → 명사절로 안긴문장

정답해설

② 안긴문장에 목적어가 없다.

3. 밑줄 친 단어의 표준 발음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름에는 달이 밝다. [박따]
- ② 마루에 등불이 켜져 있다. [등빨]
- ③ 음식이 앞마당에 차려져 있다. [암마당]
- ④ 여기저기 다니며 막일이라도 하자. [마길]

03. 정답 ④ / 난이도 ★

출제포인트 실용국어-표준발음법

문제 해결방법 어문규정의 표준발음법을 공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정답해설

제29항

①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②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③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소리를 첨가하여 [니, 나, 너, 노, 뉴]로 발음한다.

숨-이불[숨니불]	홀-이불[혼니불]	막-일[망닐]
삿일[상닐]	맨-입[멘닙]	꽃-잎[곤닙]

오답 해설

① **밝다[박따]** - (O)

제11항

겹받침 'ㄹ, ㄺ, ㄻ'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ㅋ, ㆁ]으로 발음한다.

닭[닥]	홀과[혹꽈]	팍다[박따]
늑지[늑찌]	삼[삼 :]	젊다[점 : 따]
옴고[옴꼬]	옴다[옴따]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말게[말께]	물고[물꼬]	엮거나[얼꺼나]
--------	--------	----------

② **등불[등빨]** - (O)

제28항

표기상으로는 사잇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후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문-고리[문꼬리]	눈-동자[눈똥자]	신-바람[신빠람]
산-새[산새]	손-재주[손재주]	길-가[길까]
물-동이[물똥이]	발-바닥[발빠닥]	굴-속[굴꺅속]
술-잔[술잔]	바람-결[바람꺅]	그믐-달[그믐똥]
아침-밥[아침똥]	잠-자리[잠짜리]	강-가[강까]
초승-달[초승똥]	등-불[등빨]	

③ **앞마당[암마당]**- (O)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ㅌ), ㄷ(ㅌ, ㅍ, ㅊ, ㅌ, ㅎ), ㅂ(ㅍ, ㅍ, ㅍ, ㅍ)'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먹는[멍는]	국물[궁물]	깎는[깁는]
키웁만[키웁만]	똥똥이[똥똥씨]	굽는[궁는]
흙만[흥만]	단는[단는]	짓는[진:는]
웃땀시[온땀시]	있는[인는]	맞는[만는]
젓멍울[전멍울]	쫓는[쫓는]	꽃망울[곤망울]
붙는[분는]	농는[농는]	잡는[잡는]
밥물[밤물]	앞마당[암마당]	맑는[밤:는]

4. 주체 높임이 실현되지 않은 문장은?

- ① 할머니는 시장에 가셨다.
- ② 선생님을 모시러 교무실에 갔다.
- ③ 원래 어머니의 시력은 좋으셨다.
- ④ 고향에 계신 할아버지를 그리워했다.

04. 정답 ② / 난이도 ★

출제포인트 현대문법-높임법

문제 해결방법 높임법을 실현하는 (표시)들을 외우면 되는 문제입니다.

	주체높임법	객체높임법	상대높임법
조사	께서	께	종결조사 '오'
어미	-시-	×	종결어미
어휘	계시다	모시다	×
	편찮다	여쭙다/여쭙다	
	주무시다	뵈다/뵙다	
	돌아가시다	드리다	
	잡수시다		

정답해설

② 선생님을 모시러 교무실에 갔다.
→ '모시다'만 있으므로 객체높임법만 실현되었다.

오답 해설

- ① 할머니는 시장에 **가셨다.**- **선어말어미 '-시-'**
- ③ 원래 어머니의 시력은 **좋으셨다.** - **선어말어미 '-시-'**
- ④ 고향에 **계신** 할아버지를 그리워했다.-**어휘 '계시다'**

5. 밑줄 친 어휘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나에게도 손을 벌렸다.
- ② 자동차가 가로수에 부딪쳤다.
- ③ 이따가 3시에 집 앞에서 만나자.
- ④ 과녁을 맞춘 화살이 하나도 없다.

05. 정답 ④ / 난이도 ★★

출제포인트 실용문법 - 한글맞춤법

문제 해결방법 '한글맞춤법'의 공부방법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다 빠지기 전에 누가 먼저 채워 넣느냐의 싸움입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겠죠? 제가 같이 채워 드리겠습니다. "국어는 세령국어"

정답해설

④ 맞추다 → 맞히다

※ '퀴즈의 답을 맞히다.'가 옳은 표현이고 '퀴즈의 답을 맞추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표현이다. '**맞히다**'에는 '**적중하다**'의 의미가 있어서 정답을 골라낸다는 의미를 가지지만 '**맞추다**'는 '**대상끼리 서로 비교한다.**'는 의미를 가져서 '**답안지를 정답과 맞추다.**'와 같은 **경우에만 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오답 해설

- ① 손을 벌리다 **관용구**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구걸하다.
- ② '부딪치다', '부딪히다' 둘 다 쓸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문이다.
- ③ 이따가, 있다가

이따가	조금 지난 뒤에. ----- · ~ 따로 만나자 ----- · 조금 ~ 전화할게
있다가	↔ 없다가

6. <보기>와 같이 발음할 때 적용되는 음운 변동 규칙이 아닌 것은?

<보 기>
홀이불 → [혼니불]

- ① ㄴ 첨가
- ② 두음법칙
- ③ 자음동화
- ④ 음절의 끝소리 규칙

06. 정답 ② / 난이도 ★

출제포인트 현대문법-음운변동

문제 해결방법 보기의 '음운변동'의 개념을 알면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정답해설

'**두음법칙**'은 **현대문법에서 한자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홀이불**'은 **우리말이므로 '두음법칙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답 해설

홀이불 → [혼니불] → [혼니불]
④ 음절의 끝소리 규칙 → ③ 자음동화
① ㄴ첨가

7. 띄어쓰기가 틀린 문장은?

- ① 내가 V 믿을 V 것은 V 오직 V 성실함뿐이다.
- ② 그녀는 V 사실을 V 아는 V 대로 V 설명했다.
- ③ 이 V 약초는 V 감기를 V 낫게 V 하는데 V 쓰인다.
- ④ 사람들은 V 그를 V 자기밖에 V 모른다고 V 놀렸다.

07. 정답 ③ / 난이도 ★★★

출제포인트 실용문법-띄어쓰기

문제 해결방법 어문규정 (41항~50항)에 없는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①②④ 보기는 어문규정에 있는 단어이나 정답인 ③번 보기는 어문규정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기출문제에는 여러 번 출제된 예시입니다. 이로써 "이론+기출문제"가 공부의 완성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정답해설

③ 데

의존명사	<p>① '곳'이나 '장소'의 뜻을 나타내는 말. ¶ 그는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다. ¶ 예전에 가 본 데가 어디쯤인지 모르겠다. ¶ 지금 가는 데가 어디인데? ¶ 그가 사는 데는 여기서 멀다.</p> <p>②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말. ¶ 그 책을 다 읽는 데 삼 일이 걸렸다. ¶ 사람을 돕는 데에 애 어른이 어디 있었습니까? ¶ 그 사람은 오직 졸업장을 받는 데 목적이 있는 듯하다. ¶ 찬물을 마시는 V데도 위아래가 있다.</p> <p>③ '경우'의 뜻을 나타내는 말. ¶ 말 안 듣는 V데는 매가 최고다. ¶ 이 약은 머리 아픈 데 먹는 약이다. ¶ 이 그릇은 귀한 거라 손님을 대접하는 데나 쓴다.</p>
연결어미	<p>(-ㄴ/는데)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쓴다. '그런데'의 의미가 있다. ¶ 여기가 우리 고향인데 인심 좋고 경치 좋은 곳이지. ¶ 날씨가 추운데 외투를 입고 나가거라. ¶ 그 사람이 정직하기는 한데 이번 일에는 적합하지 않다. ¶ 저분이 그럴 분이 아니신데 큰 실수를 하셨다. ¶ 영철이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하지 않는다.</p>

오답 해설

① 것: 의존명사이므로 앞을 띄어 쓴다.

뿐

의존 명사	<p>① 용언에 붙을 경우에는 띄어 쓴다. - 공부를 할뿐이다. - 그저 황홀할뿐이다. - 그녀는 얼굴이 예쁠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곱다.</p> <p>② '~다'뿐이지'의 경우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낼 때는 띄어 쓴다. 이름이 나지 않았다 뿐이지 참 성실한 사람이다. 시간만 보냈다 뿐이지 한 일은 없다.</p>
조사	<p>• 체언이나 조사에 붙을 때는 붙여 쓴다. (대명사에 붙음)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은 너뿐이다. (명사에 붙음) 그녀를 치유할 약은 사랑뿐이다. (수사에 붙음) 전남에는 고교 야구부가 하나뿐이다. (조사에 붙음) 그 아이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말썽꾸러기였다</p>
어미	(ㄹ뿐더러) 라일락은 꽃이 예쁠뿐더러 향기도 좋다

② 대로

의존 명사	<p>• 용언 뒤에서는 띄어 쓴다. ㉠ 될 수 있는 대로 쉬은 말로 써라. ㉡ 본 대로 느낀 대로</p>
조사	<p>• 체언 뒤에서는 붙인다. ㉠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 내가 한 약속대로 해 주었다. ㉢ 네 말대로 행동하지 마라.</p>

④ 밖에

의존 명사	<p>• '이외의' 뜻일 경우와 '안'과 상대적 의미로 '바깥쪽'을 나타낼 때는 명사 ㉠ 이 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 체육 대회에서 3반이 이긴 것은 예상 밖에의 일이었다. ㉢ 합격자는 너 밖에도 여러 명이 있다 ㉣ 돌을 밖에로 치워라. ㉤ 어머니는 동구 밖에까지 따라 나오며 우리를 배웅하셨다</p>
조사	<p>• '-뿐'의 뜻으로 쓰일 경우는 붙여 쓴다. (오직 그것 이외에는 없다. 대개 부정어가 따른다.) ㉠ 사랑밖에 없다.(사랑뿐이다.) ㉡ 이 일을 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 (너뿐이다) ㉢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하나뿐인) ㉣ 남은 것이라곤 그것밖에 없다.(그것뿐이다)</p>
어미	<p>• (ㄹ밖에) 다른 수가 없다'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선생님이 시키는데 할밖에. ㉡ 어른들이 다 가시니 나도 갈밖에. ㉢ 자식들이 속을 썩이니 어머니가 저렇게 늡으실밖에.</p>

8. 다음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극은 극 양식을 대표한다. 비극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발전해 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비극은 고양된 주제를 묘사하며, 불행한 결말을 맺게 된다. 그러나 비극의 개념은 시대와 역사에 따라 변하고 있다. ① **그리스시대의 비극은 비극적 결함이라고 하는 운명의 요건으로 인하여 파멸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 냈다.** ③ **근대의 비극은 성격의 문제나 상황의 문제로 인하여 패배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 준다.**

비극은 그 본질적 속성이 역사적이기보다 철학적이다. ④ **비극의 주인공**으로는 일상적인 주변 인간들보다 고귀하고 ④ **비범한 인물을 등장시킨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이른바 비극적 결함이라고 하는 운명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④ **비극의 관객들은 이 주인공의 비극적 운명에 대한 공포와 비애를 체험하면서 카타르시스에 이르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같은 주장에 의해서 비극을 인간의 삶의 중심에 위치시킨다.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결말이 불행하게 끝나는 것이 좋다고 보았으나, 불행한 결말이 비극에 필수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사실 그리스 비극 가운데 결말이 좋게 끝나는 작품도 적지 않다.

- ① 비극적 결함에 의해 파멸되어 가는 인간의 모습을 담은 것이 근대 비극이다.
-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비극이 모두 불행한 결말로 끝이 나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 ③ 그리스 시대 비극의 특징은 성격이나 상황의 문제로 인해 패배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④ 관객들은 비극을 통해 비범한 인간들의 운명에 대한 공포와 비애를 경험하면서 카타르시스에 이르게 된다.

08. **정답 ④ / 난이도 ★**

출제포인트 비문학(독서)-독해

문제 해결방법

비교적 쉬운 독해 문제입니다. 그러나 보기(①~④)가 긴 지문입니다. 보기 지문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주어와 서술어를 명확히 찾고 본문에 있는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답 해설

- ① 비극적 결함에 의해 파멸되어 가는 인간의 모습을 담은 것이 근대 비극이다.(×)
→ 그리스 시대의 비극에 대한 설명이다.
-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비극이 모두 불행한 결말로 끝이 나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 본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필수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
- ③ 그리스 시대 비극의 특징은 성격이나 상황의 문제로 인해 패배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 준다.
→ 근대 비극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9. <보기>를 참고하여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집의 옷밥을 언고 들먹는 저 고공(雇工)아, 우리 집 기별을 아느냐 모르느냐. 비 오는 날 일 업슬 지긋 쏘면서 니르리라. ㉠ 처음의 한어버이 사름스리 흐려 흘 지, 인심(仁心)을 만히 쓰니 사름이 절로 모다, ㉡ 풀 썩고 터을 닷가 큰 집을 지어 내고, 셔리 보십 장기 쇼로 전답(田畓)을 기경(起耕)하니, ㉢ 오려논 터밧치 여드레 그리로다. 자손(子孫)에 전계(傳繼)하야 대대(代代)로 내려오니, 논 밧도 죠커니와 고공(雇工)도 근검(勤儉)터라. 저희마다 여름지어 가을여리 사던 것슬, 요사이 고공(雇工)들은 험이 어이 아조 업서, 밥사발 크나 차그나 동웃시 죠코 즈나, ㉣ 모습을 툃호논 듯 호슈(戶首)을 식오논 듯, 무슴 일 감드러 흘긧할긧 흐느슨다.

- 허전, 「고공가(雇工歌)」

<보 기>

이 작품은 조선 왕조의 창업부터 임진왜란 직후의 역사를 농사일이나 집안 살림에 빗대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서로 시기하고 반목하는 요즘 고공들의 행태를 질책하고 있다.

- ① ㉠ : 태조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창업한 사실과 관련지을 수 있다.
- ② ㉡ : 나라의 기초를 닦은 조선 왕조의 모습과 관련지을 수 있다.
- ③ ㉢ : 조선의 땅이 외침으로 인해 피폐해진 현실과 관련지을 수 있다.
- ④ ㉣ : 신하들이 서로 다투고 시기하는 상황과 관련지을 수 있다.

09. 정답 ③ / 난이도 ★★★

출제포인트 고전문학 -고전문문의 해석

문제 해결방법 그동안 소방 직렬에서 나오지 않은 지문이 출제되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고개를 가우뚱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고전문문의 출제 범위가 더 넓어졌다고 보셔야 할 듯합니다. 낯선 지문이다 보니 출제진도 수능형으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보기>의 내용으로 풀 수 있게끔 했으나 본문 해석이 되면 조금 더 쉬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국가직 7급에서 출제된 부분과 동일했습니다. 기출문제를 본 수험생이라면 조금 더 쉬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답해설

③ “㉢ 울벼 논 텃밭이 여드레 동안 갈 땅(조선 8도)이 되었다.” → 조선 8도를 세우는 과정의 의미이다.

★ 비유어의 원관념

고공	↔	벼슬아치
옷밥, 밥, 사발, 동웃		녹봉, 이권
우리 집, 큰 집, 전답		우리나라
한 어버이		이성계
사름스리, 세간, 가산		나라살림
여름(농사)		국사
호슈		왕, 임금
여드레 갈 땅		조선 8도

지문연구 여전, <고공(雇工)가>

집의 옷 밥을 제쳐 놓고 빌어먹는 저 고공아
우리 집 기별을 아느냐 모르느냐.
비 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 꼬며 이르리라.
㉠ 처음에 조부모님 살림살이하러 할 때
어진 마음을 많이 쓰니 사름이 절로 모여
㉡ 풀 째고 터를 닦아 큰 집을 지어 내고
썩레 보습 쟁기 소로 전답을 일구어 내니
㉢ 울벼 논 텃밭이 여드레 동안 갈 땅(조선 8도)이 되었다.
자손에 물려주어 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좋거니와 머슴도 부지런하더라.
저희마다 농사지어 부유하게 살던 것을
요사이 고공들은 생각이 아주 없어
밥사발 크나 작으나 동웃이 좋고 굶으나
㉣ 마음을 다투는 듯 우두머리를 시기하는 듯
무슴 일 업혀 들어 흘긧할긧 하는가.

- 들먹는: 못생기고 마음이 올바르지 못한
- 고공: 머슴. 나라의 신하(관리)를 가리킴
- 우리 집 기별: 조선의 역사를 비유함
- 새끼
- 니르리라: 화자. 집안의 주인
- 한어버이: 조부모
- 사름스리: 살림살이
- 큰 집을 지어 내고: 나라를 세우고
- 셔리 보십 장기: 농기구들
- 기경: 논밭을 갈
- 여드레 그리로다: 나라를 세우고
- 전계(傳繼):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한다는 뜻을 문서에 적던 일
- 여름지어: 농사지어
- 가을여리: 부유하게
- 요사이 고공들: 비판의 대상. 조정의 신하들의 비유
- 동웃시: 남자가 입는 저고리
- 호슈: 우두머리
- 식오논 듯: 시기하는 듯
- 흘긧할긧: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는 모습

문 14. '고공'이 조정의 신하를 비유한다고 볼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 국가직 7급

집의 옷 밥을 두고 빌어먹는 저 고공(雇工)아
우리 집기별을 아느냐 모르느냐
비 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 꼬면서 이르리라
㉠ 처음의 한어버이 살림살이 하러 할 때
인심(仁心)을 많이 쓰니 사름이 절로 모여
풀 베고 터를 닦아 큰집을 지어 내고
썩레 보습 쟁기 소로 전답(田畓)을 기경(起耕)하니
울벼논 텃밭이 ㉢ 여드레 같이로다
자손(子孫)에 전계(傳繼)하여 대대(代代)로 내려오니
논밭도 좋거니와 고공도 근검터라
저희마다 농사지어 부유하게 살던 것을
요사이 고공들은 생각이 어이 아주 없어
밥 사발 크나 작으나 동웃이 좋고 굶으나
마음을 다투는 듯 ㉣ 호수(戶首)를 시기하는 듯
무슴 일 감겨들어 흘긧할긧 하는가
너희들 일 아니하고 시절(時節)조차 사나워
가득이나 내 세간이 줄어지게 되었는데
옛그제 ㉡ 화강도(火強盜)에 가산(家産)이 탕진하니
집하나 불타 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크나큰 세간을 어찌하여 일으키려느냐
김가 이가 고공들아 새 마을 먹으려무나
- 허전, 고공가(雇工歌) -

- ① ㉠: 태조 이성계 ② ㉡: 조선 팔도 ③ ㉢: 임금 ④ ㉣: 왜적

※ [10~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도르래는 등근 바퀴에 튼튼한 줄을 미끄러지지 않도록 감아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데 사용하는 도구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도르래는 고정 도르래와 움직 도르래 이다. 그렇다면 두 도르래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

▶1단락: 고정도르래와 움직도르래

우선 고정 도르래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고정 도르래는 힘의 방향만 바꾸어 주는 도르래로 줄을 감은 바퀴의 중심축이 고정되어 있다. 힘의 이득을 볼 수는 없지만, 힘의 작용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정 도르래를 사용할 때는 줄의 한쪽에 물체를 걸고 다른 쪽 줄을 잡아 당겨 물체를 원하는 높이까지 움직인다. 이때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은 줄 하나가 지탱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 들어 올리는 것과 비교해 힘의 이득은 없으며 단지 ④고정 도르래 때문에 줄을 당기는 힘의 방향만 바뀐다. 하지만 물체를 높은 곳으로 직접 들어 올리는 것보다는 줄을 아래로 잡아 당김으로써 물체를 올리는 방법이 훨씬 편하다. 또한 물체를 1미터 들어 올리기 위해 잡아당기는 줄의 길이도 1미터면 된다.

▶2단락: 고정도르래의 장점

한편 움직 도르래는 힘의 이득을 보기 위해 사용한다. 움직 도르래를 사용할 때는 도르래에 줄을 감고 물체를 들어 올린다. ①움직 도르래는 도르래 축에 직접 물체를 매달기 때문에 줄을 당기면 물체와 함께 도르래도 움직인다. 이때 물체를 지탱하는 줄은 두 가닥이 된다. 물체의 무게는 각 줄에 분산되어 두 사람이 각각의 줄을 잡고 동시에 들어 올리는 효과가 난다. 따라서 움직 도르래 한 개를 사용하면 물체 무게의 2분의 1의 힘으로 물체를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물체를 1미터 들어 올리기 위해 당겨야 하는 줄의 길이는 물체가 올라가는 높이의 두 배인 2미터이다. 왜냐하면 물체가 1미터 올라갈 때 물체를 지탱하는 두 줄도 동시에 1미터씩 움직여야 하는데, 줄을 당기는 쪽으로 줄이 감기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③움직 도르래를 이용하여 물체를 들어 올리면 줄의 길이는 물체가 움직여야 하는 높이의 두 배가 필요하게 된다.

▶3단락: 움직도르래의 장점

1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고정 도르래는 도르래 축에 물체를 직접 매달아 사용한다.
- ② 움직 도르래와 고정 도르래를 함께 사용해야 물체의 무게가 분산된다.
- ③ 움직 도르래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높이는 줄의 길이에 영향을 받는다.
- ④ 고정 도르래는 줄을 당기는 힘의 방향과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일치한다.

10. 정답 ③ / 난이도 ★★

출제포인트 비문학(독서)-독해

문제 해결방법 긴 지문입니다. 정보를 놓치지 않고 읽어내는 집중력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정답해설

③ 지문을 근거로 들면 움직도르래가 줄의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고정 도르래는 도르래 축에 물체를 직접 매달아 사용한다.(x)
→ 움직도르래에 대한 설명이다.
- ② 움직 도르래와 고정 도르래를 함께 사용해야 물체의 무게가 분산된다.(x)
→ 본문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다
- ④ 고정 도르래는 줄을 당기는 힘의 방향과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일치한다.(x)
→ 본문에 “고정 도르래 때문에 줄을 당기는 힘의 방향만 바뀐다.”는 설명이 있다.

11.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 사례를 통해 개념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대상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③ 대상의 인과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 ④ 특정 기술이 발달한 과정을 순서대로 제시하고 있다.

11. 정답 ② / 난이도 ★

출제포인트 비문학(작문)-글의 전개 방식

문제 해결방법 글의 전개방식을 찾는 문제는 글의 주제를 먼저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글의 주제는 처음 단락이나 마지막 단락에 있습니다. 이 글은 처음 단락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답해설

② 고정도르래와 움직도르래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12.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함께, 서로' 등은 유대감과 연대감을 드러낸다.
 이발소 앞에 서서 참외를 쥐고
목로에 앉아 막걸리를 들이켜면
 선술집에 있는 길고 좁은 나무 의자
모두들 한결같이 친구 같은 얼굴들
 농민의 순박함

㉡ **호남의 가뭄 애기 조합 빗 애기**
 농민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
 약장수 기타 소리에 발장단을 치다 보면
 왜 이렇게 자꾸만 **서울이 그리워지나**
 농촌의 피폐함에 대한 탄식
 어디를 들어가 **빚다**라도 벌일까
 노름의 한 종류
주머니를 털어 색짓집에라도 갈까
㉢ 학교 마당에들 모여 소주에 오징어를 찢다
 울적하고 서글픈 마음을 달래고자 하는 마음
 어느새 긴 여름 해도 저물어
고무신 한 켤레 또는 조기 한 마리 들고
 가난한 농민들의 장바구니(삶의 애환)
㉣ 달이 환한 마룻길을 걸쭉이는 과장
 비애와 좌절감으로 술에 취한 모습+농촌 현실의 불구성
 - 신경림, **과장**
 ① 장이 끝남 ② 황폐되어 가는 농촌의 현실

- ① ㉠ : 농민들이 서로에게 느끼는 유대감을 보여 준다.
- ② ㉡ : 농민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난다.
- ③ ㉢ : 어려움을 극복한 농민들의 흥겨움이 드러난다.
- ④ ㉣ : 농촌의 험겨운 현실을 시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12. 정답 ③ / 난이도 ★★

출제포인트 현대문학-시

문제 해결방법

시의 이론을 숙지하고 문제를 보면서 적절한 풀이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보기 ①~④는 “시의 의미성”과 관련된 보기만 있습니다. 따라서 음악성이나 표현법의 이론은 접어 둡시다.

★시의 구성 요소

음악성 운율(리듬)	① 행과 연으로 나뉜 것을 보자 ② 각 연을 도형으로 만들어 보고 일정한 패턴으로 그려지면 반복되는 운율감이 있다. ③ 반복되는 어구, 시어 등을 확인
회화성 심상, 표현법	① 단일심상, 복합심상, 공감각적 심상 이론을 배워야 한다. ② 문학의 표현법을 배워야 한다. ③ 비유와 상징, 강조법, 변화법, 반어와 역설 등을 배워야 한다.
의미성 (사상성) 주제	① 제목을 확인한다. (여기서 어휘력이 나온다.) ② 시의 내용을 읽으면서 모르는 어휘가 나올 때는 문맥에 어울리는 단어로 바꿔 버리자. (단 어휘의 뜻을 물어보는 문제라면 정확한 뜻을 알아야 한다.) ③ 시적 화자를 파악한다. ④ 시적 대상이 나(시적 화자)의 이야기인지 다른 외부 대상 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⑤ 시적 대상의 상황을 찾자(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⑥ 정서(상황이 그려지면 정서는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정답해설

③ ㉢ : 어려움을 극복한 농민들의 흥겨움이 드러난다.(×)
 → (현대사회에서) 술을 먹는 행위는 갈등이나 답답함을 드러내는 소재로 사용된다. 답답함을 드러내는 행위로 볼 수 있다.

※ [13~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십년(十年)을 경영(經營)하여 초려삼간(草廬三間) 지어 내니
 나 혼 간 들 혼 간에 청풍(淸風) 혼 간 맛져 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덕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
 - 송순의 시조

(나) 동지(冬至)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春風) 니불 아리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 황진이 시조

1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자 어휘를 활용해 유교적 이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선경후정(先景後情)으로 시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③ 의지적 어조의 종결 어미로 화자의 의도를 강화하고 있다.
- ④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

13. 정답 ③ / 난이도 ★★

출제포인트 고전문학 - 고전문문의 표현법과 주제

문제 해결방법

고전문학은 자주 출제되는 지문을 많이 풀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답해설

③ 중장의 서술어를 통해 화자의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
 (가)의 중장은 자연 속에 살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나)의 중장은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오래 함께 하고 싶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오답해설

- ① (가)와 (나)가 한자 어휘를 활용한 것은 맞으나 유교적 이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 ② 선경후정(먼저 외부 묘사를 하고 후에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는 시상 전개 방식)의 방식이 (가)와 (나)에 사용되지 않았다.
- ④ (가)의 주제는 자연 귀의의 주제를 담고 있고, (나)는 임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의 주제를 담고 있다.

14. (가)에 드러나는 주제 의식과 관련된 사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 ① 敎學相長
- ② 安貧樂道
- ③ 走馬看山
- ④ 狐假虎威

14. 정답 ② / 난이도 ★★

출제포인트 한자 어휘

문제 해결방법

한자어는 시험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조금씩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한자성어는 외울 단어가 많지 않습니다. 약 300~500단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 문제처럼 독음을 달지 않고 나오는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로 제게 문의하시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해설

② 安貧樂道(안빈낙도) : 가난 속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道)를 즐김.

오답해설

- ① 敎學相長(교학상장):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스승과 제자가 함께 성장함.
- ③ 走馬看山(주마간산): 말을 타고 달리며 산천을 구경한다는 뜻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대충 보고 지나감을 이르는 말.
- ④ 狐假虎威(호가호위):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는 뜻으로,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의 비유.

15.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심 매러/ 갈 적에는/ 갈뽕을/ 따 가지고/
(김-논밭에 난 잡풀)[갈 때 따는 뽕, 언어유희(리듬감을 살리면서 웃음을 자아내는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고 있고, 고된 노동의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는 부녀자들의 긍정적 삶의 태도가 담겨 있음)

기심 매고/ 울 적에는 /울뽕을 /따 가지고
[울 때 따는 뽕, 언어 유희이지만 '울뽕'이라는 말이 '이르게 일이 핀 뽕나무를 가리키는 말로, 여기서는 '울 때 따는 뽕'이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는 중의적인 말이다.] 1행~2행[대구와 반복법 사용]

삼간방에/ 누어 놓고/ 청실홍실 /뽐아내서
[세 칸짜리 방]에 누어(누에) 놓고

강릉 가서 /날아다가/ 서울 가서 /매어다가
[베틀에 날살을 걸어다가] [길게 늘어서 실을 만들어]

하늘에다 /베틀 놓고 /구름 속에 /이때 걸어
[잉아 : 실]

(견우와 직녀의 설화와 관계됨, 힘든 노동이지만 환상적인 이미지로 상상력을 통해 노동의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다. 부녀자 = 직녀에는 자긍심이 담겨 있음. 대구법 사용)

함경나무/ 바다집에 /오리나무/ 북게다가/
함경나무[로 만든] 바다집[베틀의 바다를 끼우는 테. 흠이 있는 두 짝의 나무에 바다를 끼우고 양편 마구리에 바다집비늘을 꿸다. 구광. 바디틀.]

오리나무 북[날살의 틈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싸실을 풀어 주는 배 모양의 기구]

짜궁짜궁/ 짜아 내어/ 가지잎과/ 뭉거워라
(베짜는 소리를 흉낸 의성어)
가지잎(명주실의 한 바람을 세는 단위)

배꽃같이/ 아래워서/ 참외같이/ 울 짓고
표백해서 직유 (실이나 줄의 가닥)

베짜기의 전 과정(뽕 따기 - 실 뽑기 - 날살 날기 - 날살 매기 - 이때걸이 - 짜기 - 표백 - 옷 짓기)

외씨 같은 /보선 지어/ 오빠님께 /드리고
오이씨(직유) 버선

겹옷 짓고/ 솜옷 지어/ 우리 부모 /드리겠네

(베 짜기의 결과로 얻을 보람을 생각하며 고달픔을 잊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됨, 노동의 힘겨움 속에서도 가족 사랑이 담겨 있고, 가족애를 바탕으로 한 우애와 효의 강조 그리고 유교사상의 영향이 드러남) - 가족들에 대한 애정

9행~10행 대구법

- 작자 미상, 「베틀 노래」

- ① 노동 현실에 대한 한과 비판이 드러나 있다.
② 대구법과 직유법 등의 표현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③ 4·4조의 운율과 언어 유희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④ 화자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과장되게 표현한 부분이나 타나 있다.

15. 정답 ① / 난이도 ★★

출제포인트 고전문학-고전문문

문제 해결방법

고전문문의 새로운 지문은 보기①~④를 읽고 본문과 비교하여 끼워 맞추는 방식을 풀 수 있습니다. 다만 「대구법, 직유법, 4.4조, 언어유희」와 같은 이론 용어는 공부를 꼭 하셔야 합니다.

정답해설

①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답 해설

본문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6. 다음에서 알 수 있는 '나'의 이름은?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 이름은

①아랫입술과 윗입술이 맞닿아서 나는 소리(양순음)가 한 개 들어 있습니다. ②과열음이나 과찰음은 없고 ③비음이 포함되어 있어서 발음하기 부드럽습니다. 제 이름을 발음할 때 ④혀의 위치는 가장 높았다가 낮게 내려가면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기도 합니다. 제 이름은 무엇일까요?

- ① 민애 ② 진주 ③ 하은 ④ 정빈

16. 정답 ① / 난이도 ★

출제포인트 현대문법-자모음의 체계

문제 해결방법 자모음 체계를 암기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해설

★ 자음체계: (암기방법) 바 / 다 속/ 조 / 개 / 흥, 마 / 누라 / 야

Table with 6 columns: 소리 나는 위치, 두 입술, 윗잇몸과 혀끝, 경구개와 혀바닥, 연구개와 혀 뒤, 목청사이. Rows include 양순음, 치조음 설단음, 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안올림소리, 울림소리.

★ 모음 체계: (암기방법) 단모음-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Table with 4 columns: 혀의 위치 입술 모양, 전설모음, 후설모음. Rows include 혀의 높이 입술 개폐, 고모음(폐모음), 중모음, 저모음(개모음).

※ [17~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최근 들어 '낙이다'라는 표현을 사람에게 쓰고는 한다. 물론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아니다. (①가령 인터넷상에서 호기심이나 관심을 발동시키는 기사 제목을 보고 그 기사를 읽어 보았지만, 그럴 만한 내용이 없었을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예시) (즉 '낙이다'라는 말은 기사 제목이 던지는 미끼에 현혹되어 그것을 몰었지만 소득 없이 그만만 당하였다는 의미이다.- '낙이다'의 정의)

'낙시질'은 특히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특징적인 현상이다.

▶ 도입: '낙이다'의 쓰임과 정의

(나)

캐나다의 매체 이론가인 마셜 맥루언은 ("매체는 메시지이다.-인용)라고 하였다. 매체란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을 말하는데, 그것은 단순한 수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자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메시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그에 따르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의사를 전달하는 언어는 물론이거니와 노동의 도구들조차 인간과 노동 대상 사이를 매개하는 물건이므로 매체에 속한다. 따라서 새로운 매체가 개발되면 그것을 통해 인간의 활동 영역이 훨씬 더 확대 되므로 '매체는 인간의 확장'이라고 했다.

▶ 매체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

(다)

④매체가 가지는 능동적인 힘을 인정한다면, 매체가 단순히 메시지를 담은 그릇에 불과하다거나 중립적일 수도 있다는 견해는 환상에 지나지 않게 된다. 매체가 중립적이지 않다면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들도 자연 중립적일 수가 없다. 앞서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신문 기사 제목의 '낙시질'을 문제 삼았지만 인터넷 이전의 언론 매체들이라고 해서 모두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 왔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 매체의 성격-중립적이지 않다.

(라)

③상업적이고 퇴폐적인 방송이나 기사, 자칫하면 국수주의로 흐를 수도 있는 스포츠 중계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윤 동기에 지배당하는 매체 회사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손바닥도 혼자서는 소리를 낼 수 없는 법, 상업화로 균형 감각을 상실한 방송이나 기사를 흥미롭게 보는 수용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남의 사생활을 몰래 들여다보고 싶어 하는 욕망, 불행한 사건·사고들을 수수방관하면서도 그 전말에 대해서는 시시콜콜히 알고 싶어 하는 호기심, 집단의 열광 속에 파묻혀 자신이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보상받고 싶어 하는 수동적 삶의 태도 등은 황색 저널리즘과 '낙시질'이 성행하는 터전이 된다. 바로 ②'우리'가 그들의 숨은 동조자일 수 있다.

▶ 중립적이지 않은 매체의 동조자

17. 윗글로 알 수 있는 내용은?

- ① '낙시질'은 남의 사생활을 몰래 들여다보는 행위로,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특징적인 현상이다.
- ② 이윤 동기에 지배당하는 매체 회사들을 바로 상업적 방송의 '숨은 동조자'라 할 수 있다.
- ③ 신문 기사와 같은 매체 자료는 생산자의 주관적 동기에 영향을 받는다.
- ④ 매체 회사들이 생산한 매체 자료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

17. 정답 ③ / 난이도 ★★

출제포인트 비문학(독서)-독해

문제 해결방법 내용일치 + 추론하기가 함께 출제된 문제입니다.

정답해설

③ (다)단락에서 밑줄 친 부분을 추론하면 "매체 자료는 생산자의 주관적 동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낙시질'은 남의 사생활을 몰래 들여다보는 행위로,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특징적인 현상이다. -(x)

→ 밑줄 친 부분은 '낙시질'의 뜻이 아니다.

② 이윤 동기에 지배당하는 매체 회사들을 바로 상업적 방송의 '숨은 동조자'라 할 수 있다.(x)

→ 숨은 동조자는 수용자, 즉 '우리'이다.

④ 매체 회사들이 생산한 매체 자료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x)

→ 매체가 중립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18. 윗글에 드러난 설명 방식이 아닌 것은?

- ① 비교
- ② 예시
- ③ 정의
- ④ 인용

18. 정답 ① / 난이도 ★★

출제포인트 비문학(작문)-글의 전개 방식

문제 해결방법

글의 전개 방식의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비문학 이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해설

보기 지문에서 ②③④는 쓰였으나 비교는 쓰이지 않았다.

즉, 두 대상의 공통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체 전체의 성격을 말하고 있다.

오답 해설

※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를 낳는 터전은 유목적이고 도시적인 환경일 터인데 내가 태어나 자란 곳은 정착민, 농경의 세계였다.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어제 같아서 좀처럼 변하지 않는 풍경, 관계, 면면에서는 선물을 주고받을 일이 없었다. 식구끼리 선물을 주고받는다든 건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선물을 받은 적이 있다. 그것도 아버지에게서. “이건 네(게 주는) 선물”이라고 아버지가 말했기 때문에 그건 선물이 되었다. 개였다. 정확하게는 ㉠ 강아지였다.

아버지는 어느 날 점퍼 속에 강아지 한 마리를 넣어왔다. 난 지 며칠이나 지났을까. 호떡을 싸는 종이 봉지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았다. 어린 시절 내게 개는 닭처럼 잡아먹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닭 이상으로 좋아할 것도 없는 동물이었다. 중학교 2학년 때 서울이라는 유목적이고 도시적인 환경으로 전학은 내게 아버지가 선물이라며 준 강아지는 내가 그때까지 보아온 가축이 아니라 처치 곤란하고 ‘낯선 것’이었다. 그 이전에는 물론 그 뒤로 아버지는 한 번도 내게 선물을 준 적이 없다.

겨울밤이었고 ㉡ 아버지가 일평생 처음으로 선물이라며 종이 봉지 속에 든 강아지를 내게 줄 때 술 냄새가 났다. 나는 종이 봉지 속 강아지의 목덜미를 붙들며 현관 바깥 종이 상자 속에 내려놓았다. 가축은 집 안에 들일 수 없는 게 원칙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강아지를 선물로 생각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많은 식구 중 내게 주는 선물이라고 했지만 아버지가 그날 밤 집에 들어오면서 부딪힌 첫 번째 식구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의 선물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겼다. 하지만 기분은 묘했다. 어쨌든 아버지에게서 처음 받은 선물이었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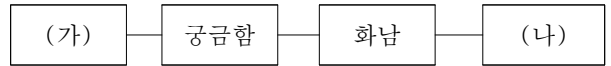
한밤중에 나는 선물이 우는 소리에 잠을 깼다. 내 옆, 옆과 그 옆, 그 옆에 자고 있는 그 누구도 잠을 깨거나 일어나지 않았다. 방을 나가서 바깥에 있는 화장실로 가기 위해 문을 열었을 때 선물이 우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다. 사실 오줌이 마려웠던 것도 아니었다. 선물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건 다리를 떨떨 떨며 킁킁거렸다. 나는 배가 고파서 우는 걸로 알았다. 부엌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뭘 가져다줄 수 없었다. 나는 그날 저녁 내 몫으로 받고 아껴 먹다 남겨 둔 백설기를 가지고 나왔다. 접시에 물을 담아 ㉢ 백설기와 함께 큰맘 먹고 내밀었다. 선물은 내 선물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 그저 킁킁거리며 다리를 떨며 울 뿐이었다. 나는 무시당한 데 대해 화가 났다. 선물을 철회했다. 백설기를 집어 들면서도 물은 그냥 두었다. 울다 보면 목이 뻐지도 모르고 물은 그럴 때 먹으면 되니까.

방으로 돌아와 누웠을 때에도 선물의 울음소리는 계속 해서 들려왔다. 천둥 치듯 아버지는 코를 골았지만 선물의 가느다란, 어린 킁킁거림은 정확하게 나의 청각을 자극 하고 잠 못 들게 했다. 결국 다시 밖으로 나갔다. 철회했던 선물을 다시 주고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선물의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하자 울음이 그쳤다. 선물은 너무 어려서 백설기를 먹을 수 없었다. 물을 마시지도 않았다. 다만 관심과 연민에 반응할 수 있을 뿐이었다. 관심과 ㉣ 연민의 공급이 중단되면 즉시 울음이 시작됐다. 결국 나는 내복 바람으로 날이 밝아 오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강아지를 선물했다. 나는 강아지에게 백설기를 선물했다. 밤이 아침을 선물하듯 강아지는 내게 난생처음 경험하는 연민의 감정을 선물했다.

- 성석제, 「선물」

19. ‘강아지’에 대한 ‘나’의 감정 변화로 (가), (나)에 가장 알맞은 것은?



- (가) ① 즐거움 ② 난처함 ③ 즐거움 ④ 난처함
(나) 불쌍함 사랑함 사랑함 불쌍함

19. 정답 ④ / 난이도 ★

출제포인트 현대문학-소재에 대한 이해

문제 해결방법

먼저 글의 제목이 있으므로 “문학 작품”이라는 것을 눈치 채셔야 합니다. 문제를 확인해보니 ‘강아지’에 중점을 두고 읽어야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역시 ‘중심소재’에 대한 문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

(가) “처치 곤란하고 낯선 것이었다”는 구절을 통해 ‘난처함’을 알 수 있다. (나) “강아지는 내게 난생처음 경험하는 연민의 감정을 선물했다.” 구절을 통해 ‘불쌍한 감정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20. 윗글의 내용에 비춰 볼 때 ㉠~㉣ 중 내포하는 의미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20. 정답 ② / 난이도 ★★★

출제포인트 현대문학-소재에 대한 이해

문제 해결방법

소재에 관해서 화자의 감정이 어떻게 흐르는지 확인해 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락에 답에 나와 있군요. ^^

정답해설

② 아버지; 선물을 준 대상 ①③④은 선물의 의미가 다양하게 변한 소재

지문연구 성석제, <선물>

- 1. 갈래: 수필 2. 성격: 회상적, 경험적 3. 주제: 강아지를 통해 알게 된 연민의 감정 4. 특징 ① 아버지에게서 처음 선물을 받은 일상적 경험에서 삶의 중요한 의미를 발견함 ② ‘선물’이라는 단어를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여 선물의 진정한 의미를 환기함 5. 표현 방식: 연쇄법, 반복법, 직유법, 은유법, 상징법 ① 아버지는 내게 ~을 선물했다 ② 나는 강아지에게 ~을 선물했다 ③ 강아지는 내게 ~을 선물했다 -나는 선물이 우는 소리에 잠이 깼다.(은유법) -밤이 아침을 선물하듯(직유법, 상징법)